

**‘제주 농촌마을 3.0 모델 개발
연구’
해외사례조사 보고서**

2015. 12

김향자 비상임연구위원

‘제주 농촌마을 3.0 모델 개발 연구’ 해외 사례조사

I.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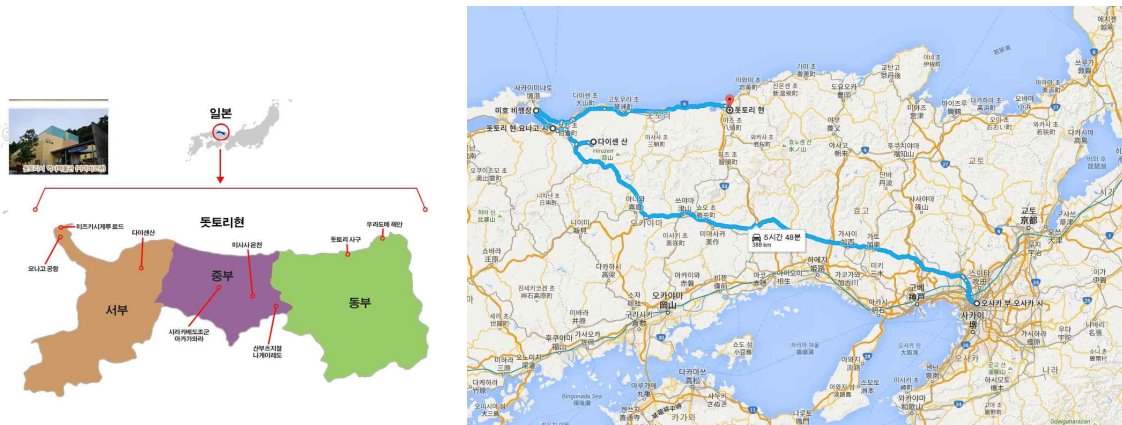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 제주도 농어촌지역에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에 다양한 시설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나, 마을 간, 지원사업간 연계·협력은 미흡함.
- 개별 마을별 농촌관광사업을 넘어서 지역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간 자원, 인적자원 등에 대한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함.
- 개별 마을별 보유하고 있는 자연·문화자원, 인적자원, 기존산업 간 융복합, 기 추진된 사업 등을 네트워킹하는 농촌마을 만들기 3.0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995년을 기점으로 개발방식이 바뀌게 됨.
- 이전 중앙부처에서 해당 농촌을 선정하여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마을 공모에 의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바뀌게 됨.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사업 시행방식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개발방식을 1.0모델로 규정하고, 상향식 개발방식을 2.0 모델로 규정하고 새로운 개발방식 필요성을 제기함.
- 새로운 농촌마을만들기 개발방식으로 개별 마을별 보유하고 있는 자연·문화자원, 인적자원, 기존산업 간 융복합, 기 추진된 사업 등을 네트워킹하는 ‘농촌마을만들기 3.0’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지역 자원의 보전과 활용, 지역(장소) 중심 통합적 접근,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농촌마을 만들기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농어촌 마을 만들기 사례를 조사하여 마을 활성화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일본 경우 도시, 농촌, 어촌 등 각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 산업자산, 자연자산 특성에 기초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촌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사례를 통해 주민공동체,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PD) 등의 역할을 파악하고 한경면 농촌마을 및 어촌마을의 발전에 기여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출장계획

- 출장기간 : 2015년 12월 5일(토) ~ 2015년 12월 9일 (수) (4박 5일)
- 출장국가 및 지역 : 일본 돗토리현(농촌과 어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지역)
- 출장자 : 김향자(비상임연구위원)



3. 주요 수행사항

- 농촌마을의 주민협력형 사업 사례 조사 및 면담: 유희시설을 활용
- 농촌 및 산촌지역,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활성화한 사례
 - 전통문화보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면담
- 쇠퇴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 조사

4. 출장일정(12. 5 - 12. 9)

일자	시간	세부일정	비고(방문)
12.5 (토)	16:55	김포공항 출발, 오사카 도착(18:35)	
	20:00	오사카 → 고베	이동 <고베 숙박>
12.6 (일)	08:00	돗토리현으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11:00	돗토리 현 이타이바라 집락지구	
	14:00	지즈정 타루마리	주민이 함께 하는 관광마을만들기 사례)鳥取縣智頭町
			<지즈정 숙박>
12.7 (월)	09:00	이동	<이동 2시간>
	11:00	돗토리 사구	자연경관 활용형 관광지 활성화 사례
	14:00	구라요시	농촌 전통마을
			<구라요시 숙박>
12.8 (화)	09:00	이동	<이동 2시간>
	11:00	사카미미나토시	
	15:00	이동(돗토리현→ 오카야마→고베)	(약 4시간 소요) <고베 숙박>
12.9 (수)	09:00	고베	고베항구 재개발 사례
	14:00	고베	루미나리에 축제
	17:00	간사이공항 도착	
	19:55	오사카 간사이 공항→ 김포 도착	

II. 현지 조사 주요 내용

1. 지즈정

1) 타루마리(폐교 활용 경제 순환형 빵집)

□ 개요

- 일시 : 2015. 12. 6(일) 13:30 - 15:30
- 장소 : 鳥取縣 八頭郡 智頭町 大字大背 214-1
- 면담자 : 와타나베 마리코

□ 주요 내용

- 돗토리현의 지즈정은 마을의 총면적의 90% 이상이 삼림으로 인구 7,500명 정도의 한적한 산촌 지역임. 이 지역에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
- 지즈정에 지산지소를 실천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타루마리임. 타루마리는 폐교를 빵집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빵집의 주인은 와타나베 부부임. 이들은 2008년 지바현 이스미시에서 빵을 만들다가 소재가 중요함으로 깨닫고 천연균과 연재배(무비료 무농약)을 추구하게 됨. 이를 위해서 물이 좋은 돗토리현 지즈정을 찾아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것임.
- 타루마리의 특징은 천연효모로 빵을 만드는 빵집으로 균의 발효를 통한 빵집을 운영하는데 자본이나 생산수단을 통한 이윤 남기기가 목적이 아닌 정직하게 발효와 부패의 균형을 통한, 즉 자연의 수단을 이용한 노동의 순수한 가치를 일깨우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타루마리 빵집 전경



지역내 순환 경제도



타루마리 천연효모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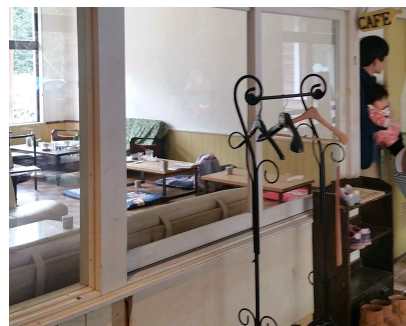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의 굶다.(책)

- 타루마리는 빵을 매개로 지역 내 농산물을 순환시키고 있음.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먹거리와 환경과 경제를 한꺼번에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 물건을 만들고 팔고 판돈을 그대로 재료비와, 노동의 대가 만 큼으로 되돌려주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 타리마루의 연매출은 3억 정도임. 여기서 부부 둘의 몫은 10%정도임
-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자동차를 몰고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손님들을 위해 폐교를 카페처럼 꾸몄음. 교실 한 곳은 어린이 놀이공간 으로 만들었음.



빵집 카페



어린이 놀이공간

□ 시사점

- 타루마리는 지즈정의 임업과 농업과 연계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본인 사업장의 수익뿐만 아니라 임업과 농업이 함께 돈 버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음.

- 빵집

- 목재 구입 → 화덕에 이용 → 재 발생 → 재를 이용하여 천연균 발효 → 빵 제조 → 수익 발생 → 목재 구입(임업 수익 발생)
- 농산물 구입 → 지역 식자재 이용한 음식 제조 → 음식 판매 → 식자재 구입(농업 수익 발생)

* 삼림이 우거질수록 물이 깨끗해짐. 타루마리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빵 제조

- 농업: 식자재 판매 → 수익금 발생 → 식자재 생산 → 판매

- 타루마리 주요 고객층은 70% 이상이 관광객으로 지역 관광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이타이바라 집락(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

□ 개요

- 일시 : 2015. 12. 6(일) 10:30 - 12:30
- 장소 : 鳥取縣 八頭郡 智頭町 智頭 2072-1

□ 주요 내용

- 이타이바라 집락은 지즈정 중심부로부터 북동쪽 약 3km 떨어진 산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임
- 이타이바라 집락은 현재 집락 원주민 1명, 지역살리기 협력대원 1명, 전원공간 정비사업으로 고용된 카페 주인 1명 등 3명이 거주하고 있음



이타이바라 보존지구 전경



고민가, 지역수차를 이용한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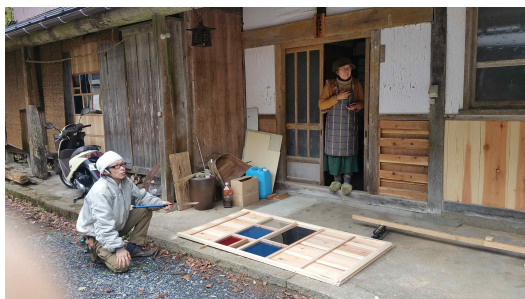


이타이바라 보존지구

- 농촌 지역은 산 및 계곡에 의해 집락이 분단된 곳이 많아, 지역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집락을 연결한 교류의 긴밀화를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 농촌이 보유한 자연, 전통문화 등 다면적 기능을 재평가하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각종 공공공익시설용지의 정비와 전통적 농업시설 및 아름다운 농촌 경관 등의 보전·복원을 배려한 정비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의 창조에 이바지할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전원정비구상'으로 하여, 생산 시스템의 재구축과 매력 있는 전원 만들기에 의해 도시와의 공생을 추진하는 '전원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을 보면, 첫째, 공공공익 시설용지 정비가 있으며, 둘째 전통적 농업시설 등의 정비, 셋째, 전원교류 기반의 정비 등이 있음
 - 공공공익시설 용지 정비: 시정촌이 책정하는 농촌 활성화토지이용구상 등의

실현을 위해 계획된 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시설정비에 필요한 용지정비를 실시함. 용지창출을 위한 장소 정비, 용지 정비, 용지에 대한 교통편도로(용지내도로 (농업집락 도로 정비사업의 요건을 만족한 곳에 한함) 포함), 용지 내 환경시설정비 (공원, 녹지 등)

- 전통적 농업 시설 등의 정비: 농촌이 가진 전통적 농업시설 및 아름다운 농촌 경관 등의 복원·정비(전원공간박물관의 정비). 농업집락 도로 정비에 의한 가로수 등의 정비(전원산책의 길(풋 패스)의 정비). 농업용 배수 시설 정비를 위한 돌담 수로 등의 정비(전통적 농업 시설의 복원 이용). 경관보전정비를 위한 역사적 시설 등의 정비(아름다운 농촌 경관 등의 복원)
- 전원 교류기반의 정비: 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집락간의 연락에 필요한 농업 집락도 등 9집락 내 도로 포함)의 교류 기반을 정비함. 실시요건) 연장 1km(중산간지역 0.8km)이상의 농업 집락 도로 등의 정비공공공익시설용지정비, 전통적 농업시설 중 1개 이상의 공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함
- 지역살리기 협력대 제도를 보면,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의 조건 불이익 지역으로 주민표를 이동하여 생활의 거점을 옮긴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살리기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며, 활동기간은 보통 1년 이상 3년 이하
- 대원은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브랜드 및 지역산품의 개발·판매·PR 등의 지역살리기의 지원 및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주민의 생활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정주·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임



지역살리기 협력대원



회원예 의한 농업

- 지역살리기 협력대 도입의 효과를 보면,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살리기 협력대 모두에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역살리기 협력 대원에게는 자신의 재능 및 능력을 살려서 활동을 하며, 공익적이며 보람찬 삶을 발견할 수 있음. 또한 지역에는 참신한 외부인 특히 젊은이를 유치할 수 있으며, 협력 대원의 열의와 행동력이 지역에 커다란 자극을 줌.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행정에서는 할 수 없었던 유연한 지역살리기 정책을 하며, 주민이 증가함에 따른 지역활성화를 가져옴
- 지역살리기 협력대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집락의 관리, 고민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이타이바라 집락의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집락 내에 있는 박물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2. 구라요시 전통거리(전통건조물 보존지구)

□ 개요

- 일시 : 2015. 12. 7(월) 14:00 - 17:00
- 장소 : 倉吉市 打吹玉川

□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

- 일본은 농촌지역의 전통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역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1975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제도를 도입했음.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이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를 지정하고, 국가는 그중에서 가치가 높은곳을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로 선정하였음.
- 시정촌은 보존조례를 제정하고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현상변경 행위의 규제 등 보존지구의 보호를 도모하고, 문화청장관과 도도부현(都道府県) 교육위원회는 보존과 관련된 지도·조언, 수리 및 수경사업 등에 대해 보조함.

□ 주요 내용

- 돗토리현 내 요나고시와 돗토리시 중간에 위치한 돗토리현 내 4개 시중 하나이며, 인구는 5만 명 이하로 총 면적은 272,15km²임. 구라요시는 일본 산음지역의 작은 도표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와 역사가 깊은 도시임. 우츠후기 산을 중심으로 박물관과 역사민속자료관 등이 있으며, 앞쪽으로는 강호시대 명치시대에 건립된 일본 전통건물 등이 많이 있어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로 선정됨
- 현재 구라요시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 참여 관련 조례 제정하는 데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구라요시청에서는 기본시책으로 정한 발전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지역만들기를 모토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해 시민들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돗토리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구라요시 전통건조물보존지구인 구라요시 우투부키타마가와(倉吉市打吹玉川)는 강호시대로부터 명치 대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상공업도시로 번영하였음. 고대에는 ‘호키국’의 정치 및 문화의 중심지였음.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엔 ‘우츠부키 산(打吹山)’에 성이 축조되면서 그 아래에 위치한 ‘구라요시 시라카베도조군’ 지역에 성하마을이 들어섰는데 당시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



구라요시 우투부키타마가와 지도



아카가와라 1호관

- 이 지역의 전통적인 저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일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구라요시 요도야임. 동 저택은 1760년 마치다 가문에 의해 세워진 건물로 루라요시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임. 구라요시를 대표

하던 상인 집안인 ‘마치다 가문’은 돗토리 번(영주)의 잡곡 거래에 손을 대며 큰 돈을 벌었음. 도요타가 저택은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구라요시의 전통적인 상거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현재는 유료로 전통 건축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만담이나 강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도요타저택(지정문화재)

- 구라요시 시라카베 쿠라부(클럽)은 아카가와라 13호관으로 1908년에 세워진 국립 제3은행 구라요시 지점의 건물로서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는 돗토리 현 내에서 제1호로 기록되어 있음.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음.



사라카베 쿠라부(아카가와라 13호관)



구라요시 전통건조물지구내 상점

- 1800년대의 일본 도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라요시 전통건조물 지구는 인구 5만이 안되는 소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주민들은 옛 모습의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중심시가지 전통사업지구 내 흙벽으로 된 창고를 개조하여 점포를 개설한 적와(赤瓦)에서는 기념품, 민예품, 과자류 등 다양한 것을 판매하고 있음. 2000년 배를 테마로 한 ‘21세기 배박물관’이 개장하면서 관광객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매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게 됨

3. 미즈키 시게루 로드

(스토리로 쇠퇴한 마을을 부흥)

□ 개요

- 일시 : 2015. 12. 8(화) 10:00 - 14:00
- 장소 : 사카이미나토시

□ 주요 내용

-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境港은 1960년대 '산인 지역(시마네 현과 돗토리 현을 일컫는 말)의 오사카'로 불릴 만큼 번영했던 일본 유수의 항구도시였음. 그러나 1970년대 자동차 중심의 교통이 발달되고 곳곳에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여 활기없는 작은 어촌마을로 전락하게 되고 폐점포가 늘어나게 됨.
- 사카이미나토시는 돗토리현 서부의 있는 동해 최대의 수산도시임. 백사청송(白砂青松)이 계속 되는 유미가하마 반도는 동남으로 우뚝 솟아있는 다이센 산을 배경으로 풍광이 맑고 아름다워 "일본의 백사청송 100선"과 "일본의 물가 100선"에 선정되어 있음
- 이곳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쇠락을 거듭하던 위기의 어촌마을이었음. 그러나 1992년 이후 지역 출신의 인기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 <게게게의 기타로>에 등장하는 요괴들을 거리에 조성하면서 '요괴거리'로 알려지기 시작했음. 일본사람에게 '요괴는 게으름뱅이에게 벌을 주는 매우 친근한 존재'라는 점을 활용해 상품화한 것임.
- 돗토리현에는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와 요괴만화로 일본인에게 유명한 미즈키 시게루 등 돗토리현 출신의 유명한 만화가가 2명이나 있음. 이들 만화가의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특히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인 사카이미나토시에는 요괴만화를 테마로 한 미즈키 시게루 로드를 만들어 연간 방문객 수백만 명의 인기 명소가 탄생함. 만화로 쇠락해 가던 도시를 유명

한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임.

- 인구 감소와 더불어 오랜 불황으로 상권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지들의 노력과 공무원의 제안으로 유명한 마을로 변하게 되었음. 또한 지역 출신인 미즈키 시게루가 자신의 캐릭터를 내놓으면서 길이 조성되기 시작했음.
- 현재 역사(驛舎)에서 인근 상점으로 이어지는 800m의 길에는 거울 보는 요괴, 등산하는 요괴, 우산 요괴 등 300여 개의 요괴 모형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전시돼 있음.



요괴마을 지도



미즈키 시게루 로드 건물벽면



미즈키 시게루 로드 요괴동상



요괴모양 빵

- 그러나 만화 캐릭터가 '요괴'라는 것 때문에 상점가에서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미즈키 시게루로드는 1993년에 23개의 요괴 동상을 세운 것에서 시작되었음. 조성 초기에는 동상이 사라지기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요괴동상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자 추가적으로 요괴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상점들도 미즈키 시게루의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음식 등을 선보이기 시작했음.
- 시 차원에서의 지원도 큰 역할을 하였는데, 미즈키 시게루 로드가 인기 관광지가 되면서 1995년에는 열차역도 리뉴얼되었음. 현재 요나고 역에서 사

카이미나토 역까지는 요괴 캐릭터로 장식된 요괴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요나고 공항은 만화 주인공 기타로의 이름을 따 '요나고 기타로 공항'으로 개명하기도 하였음.

- 지옥행 특급열차를 타고 떠나는 요괴마을은 돗토리현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임. 미즈키 시게루 로드와 동상들은 점차 늘어나 현재는 137개의 동상이 있으며, 사카이미나토 지역은 연간 180만 명이 찾아오는 인기 관광지가 되었음. 2007년에는 일본의 긴 연휴기간 중 하나인 골든 위크 때 하루 5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음.
- 사카이미나토역에서 약 800m 거리(미즈키 시게루 로드)에는 요괴 동상 110개가 들어서 있고, 택시와 인력거에도 요괴 캐릭터를 부착했음. 2003년에는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도 만들어 만화에 등장하는 요괴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사카이미나토역으로 오는 기차 일부를 요괴열차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음.
-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은 요괴 연구가이면서 만화가인 미즈키 시게루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구현된 공간으로 2003년 8월 그의 81세 생일에 맞춰 개관함. 미즈키 시게루는 '요괴인간 타요마'의 원작인 '게게게노키타로'를 그린 유명 만화가로 세상에는 1천 종류가 넘는 요괴가 살고 있다고 믿었음.



요괴열차



요나고역 요괴장치물

□ 시사점

- 미즈키 시게루 로드와 기념관, 요괴마을과 상점 등은 만화를 상품화해 어촌 마을을 다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애니메이션

한편으로 인기 관광지가 된 특별한 마을임.

- 현재 인구는 3만 5000명인데 연간 관광객 수가 3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한가한 어촌 마을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전혀 다른 관광마을로 부활시킨 사례로서 사카이미나토 시는 마을의 특성화를 위하여 추가 개발 계획 수립하기도 함.
- 미즈키 시게루 요괴마을의 성공은 고향을 살리기 위해 미즈키 시게루가 만화 저작권을 무상 양도한 것과 더불어 관광진흥회를 결성해 전시물 관리와 주차장 제공 등의 공조시스템이 잘 조화되었기 때문임.
- 137개 동상에서 스탬프를 찍는 것은 여행 기념으로의 행위이나 동상을 이해하고 또한 동상을 찾아 요괴마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는 단지 요괴 동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요괴를 테마로 한 빵집, 음식점, 기념품점 등이 있어 이곳에 와서 걷고 놀다보면 정말 요괴마을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킴으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음. 스토리의 부여가 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관광경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임.



요괴동상 스탬프 장소



미즈키 시게루 로드 야간 조명

-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씨가 고향을 살리기 위해 만화 저작권을 무상 양도한 것을 계기로 주민들은 진흥회를 결성해 이벤트 등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일을 맡고, 시는 전시물 관리와 주차장 제공 등 측면 지원하는 공조시스템을 갖춘 것이 성공의 배경이 되었음